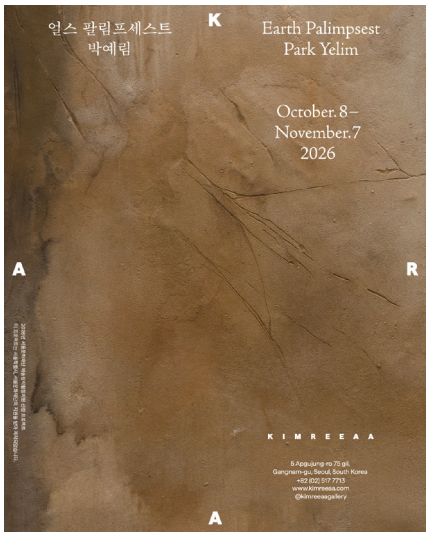
지워지고 쌓이는 풍경의 시간
김리아갤러리, 박예림 개인전 《Earth Palimpsest》 개최

● 한지와 모래, 먹의 중첩으로 만들어낸 시간의 지층
● 흐르는 풍경에서 퇴적된 흔적까지, 공간을 따라 전개되는 회화
● 기억을 재현하는 대신 현재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생성하는 풍경



박예림 개인전 《Earth Palimpsest》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박예림 개인전 《Earth Palimpsest》를 개최한다. 전시 제목인 'Palimpsest'는 이전의 기록을 지워낸 표면 위에 새로운 기록을 덧쓰는 고대 필사 방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박예림은 이를 지구와 풍경, 시간에 대한 감각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시냇물과 폭포, 안개와 파도, 동굴과 불의 흔적처럼 인간이 오래도록 마주해온 자연의 단서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재현하기보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가 겹쳐지는 회화적 장면으로 재구성한다. 얇은 한지 위에 흐르는 듯 남겨진 먹의 획은 물과 안개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고, 모래를 여러 차례 붙이고 털어내며 만들어낸 두터운 표면은 시간이 쌓이고 풍화된 지층을 연상시킨다.

박예림은 한지와 모래, 먹이라는 서로 다른 물성을 활용해 회화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시간의 기록으로 전환한다. 과거 마주한 자연의 형상을 떠올려 투명한 판 위에 획을 긋고 이를 화선지에 전사한 뒤, 장지에 배접한 한지 위에 모래를 붙이고 털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초의 획은 모래에 덮여 점차 희미해지고, 다시 먹을 더하며 일부의 흔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기록이 축적된다. 얇은 한지와 거친 모래의 대비 속에서 하나의 획은 물길의 흔적에서 암벽에 남은 기록으로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러한 회화적 구조는 전시장 전체로 이어지며, 공간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자 시간의 흐름을 이룬다. 빛을 받아 흐릿하게 드러나는 한지 작업에서 시작해 모래와 그을음이 축적된 화면, 폭포처럼 떨어지는 빛의 장면, 불의 흔적을 머금은 목재와 재의 잔재를 지나 전시장 가장 깊숙한 곳의 침전된 화면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재료와 장면은 공간의 구조와 동선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관람자의 이동과 함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흐르는 것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퇴적되어 마침내 흔적으로 남는다. 《Earth Palimpsest》를 통해 관람객은 지워지고 쌓이는 회화의 표면을 따라 기억 속 풍경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풍경이 전시장 안에서 하나의 공간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타이틀:《얼스 팔림프세스트 (Earth Palimpsest)》

전시기간: 2026.10.8 (목) - 2026.11.7(토) 11:00AM – 6:00PM (일,월 휴무)

아티스트: 박예림 (b. 1997)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Chungdamdong 100-31)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https://www.kimreeaa.com/

문의: 김세정 Se Jung Kim / 02-517-7713 / sejung@kimreeaa.com

이송현 Songhyun Lee / 02-517-7713 / songhyun@kimreeaa.com



박예림은 먹과 모래, 한지를 사용해 자연에서 느낀 서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를 화면에 담아낸다. 특정한 풍경을 재현하기보다 종이 위에 모래를 안착시키고, 재료의 물성과 우연이 만들어내는 형상과 질감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 위에 다양한 기법과 반복적인 붓질로 먹을 더하면, 먹은 모래 입자 사이로 스며들거나 표면을 가로지르며 예기치 않은 형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와 재료가 만들어내는 우연한 효과가 맞물리면서 각 화면은 고유한 형태와 질감을 갖게 된다.

모래가 깔린 표면 위에 붓질을 반복하는 행위는 자연의 다채로운 형태와 움직임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손의 속도와 힘을 고스란히 담은 붓질은 모래의 불균질한 표면과 만나고, 그 위에 쌓이거나 스며드는 먹의 흔적은 시간과 자연의 힘이 빚어낸 지형을 연상시킨다. 재료가 축적되고 가라앉거나 떨어져 나가는 동안 앞선 흔적은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화면에는 변화의 과정 자체가 기록된다. 박예림은 이러한 물질의 변화와 흔적의 중첩을 통해 자연을 고정된 풍경이 아닌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표면과 그 안에 남겨진 흔적을 회화의 언어로 풀어낸다.

서울과 뉴욕, 벨기에, 취리히 등에서 전시를 이어온 박예림은 VOLTA Basel을 비롯한 국제 미술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해외 관객 및 컬렉터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Working with ink, sand, and hanji, Park Yelim translates the lyrical yet dynamic energies of the natural world into painting. Rather than depicting specific landscapes, Park develops images through the forms and textures that emerge from the material properties of sand and the element of chance. Layers of ink are applied through varied techniques and repeated brushstrokes, seeping between grains of sand or sweeping across the surface to reveal unexpected forms.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s intentions interact with the unpredictable effects of the materials, giving each composition its distinct form and texture.

The repeated act of brushing across sand-covered surfaces becomes a way of discovering the diverse forms and movements of nature. Retaining the speed and force of the hand, the brushstrokes meet the uneven surface of the sand, while traces of ink that accumulate or seep into it evoke terrain shaped by time and natural forces. As materials accumulate, settle, or fall away, earlier marks are concealed and re-emerge, recording the process of change itself. Through these transformations and the layering of traces, Park approaches nature not as a fixed landscape but as a state of continual formation and alteration, translating the changing surfaces and marks left over time into the language of painting.

Having exhibited in Seoul, New York, Belgium, and Zürich, Park continues to expand her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audiences and collectors through presentations o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including VOLTA Basel.



Park Yelim
Letters from the Waves (2026)
sand, ink, pigment on hanji
203 × 574 cm (4 panels)



Park Yelim
Letters from the Waves/Detail (2026)
sand, ink, pigment on hanji
203 × 574 cm (4 panels)



Park Yelim
Letters from the Waves (2026)
sand, ink, pigment on hanji
203 × 620 cm (5 panels)



Park Yelim
Letters from the Waves/Detail (2026)
sand, ink, pigment on hanji
203 × 620 cm (5 panels)



Park Yelim
Grounded Remembering (2026)
sand, pigment, dry media on hanji
140 × 140 cm



Park Yelim
Vestiges 잔편 (2026)
wood, sand, dry media
Variable installation